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양대리그 10승

류현진 앞에 놓인 대기록

박찬호 이어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기대

양대리그 10승은 한국인 최초 기록

2년 연속 개막전 선발투수 자리를 예약했다. 양대리그 10승에도 도전한다.

‘토론토 No.99’ 류현진(32) 앞에 대기록 2개가 놓여 있다. 팀의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개막전 선발 등판의 영예, 그리고 양대리그 두 자릿수 승리 달성이다.

류현진은 2020년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새출발한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7시즌 동안 뛰었던 LA 다저스를 떠난다. 내셔널리그에서 아메리칸리그로 무대가 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토론토는 류현진과 4년 총액 8000만달러(약 928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2000만달러(약 232억원)를 받는 대형 계약이다. 캐나다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의 등번호 99번을 달게 된 것도 토론토가 류현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토론토에서 류현진은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한다. 토론토가 그에게 거액을 안긴 것은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상 등 큰 변수만 없다면 개막전 선발 등판도 류현진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류현진은 2019시즌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을 맡았다. 다저스 입단 7시즌만에 처음 경험한 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된 류현진은 2001년 다저스 소속이던 박찬호(7이닝 무실점)에 이어 18년만에 나온 한국인 개막전 선발 승 기록을 세웠다.

류현진이 2020시즌,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개막전 선발 마운드에 선다면 박찬호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로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등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찬호는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로 팀을 옮겨 개막전에 선발 등판, 5이닝 6실점 패전을 기록한 바 있다. ‘2년 연속 개막전 승리’도 류현진이 한국인 최초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다.

다저스에서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9년 14승을 기록했던 류현진. 만약 토론토에서 10승을 넘길 경우 한국인 최초로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에서 모두 두



류현진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릿수 승리를 따낸 선수로 기록된다.

박찬호는 내셔널리그 소속인 다저스에서 뛰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메리칸리그로 무대를 옮기고는 10승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2005년 12승을 올렸지만 텍사스(아메리칸리그)에서 8승을 기록한 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내셔널리그)로 팀을 옮겨 4승을 보낸 승수였다.

‘양대리그 두 자릿수 승리’는 아시아 선수로 범위를 넓혀도 흔하지 않은 기록이다. 일본인 투수인 노모 히데오(LA 다저스 / 보스턴 레드삭스)와 구로다 히로키(LA 다저스 / 뉴욕 양키스) 단 2명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류현진

은 세 번째 기록에 도전한다.

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류현진의 2020시즌 성적으로 10승6패 평균자책점 3.48을 예상했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는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강타선을 보유한 팀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전망이다.

2019시즌을 앞두고도 팬그래프닷컴은 류현진이 6승5패 평균자책점 3.89에 머물 것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놨었다. 그러나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2.32)에 오르는 등 14승(5패)을 따냈다. 류현진에게 양대리그 10승은 어렵지 않은 도전과제다.

뉴스1



2020년 FA 자격 선수 중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준우, 안치홍, 김선빈.

FA 13명 계약 2020년으로?

‘캠프 준비 기간’이 다가온다

19명 중 6명만 계약한 채 해 넘길듯...이적생도 전무

19명 중 6명만 소속팀을 찾았다. 2020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계약 현황이다.

이번 FA 시장은 지난달 4일 열렸다. 19명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개장 이후 두 달이 다 돼 가는 시점. 28일 현재 계약에 이른 선수는 6명뿐이다.

이지영이 가장 먼저 지난달 13일 키움 히어로즈와 3년 18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19일에는 유한준이 KT 위즈와 2년 20억원에 사인했고, 27일 정우람이 한화 유니폼을 계속 입기로 했다.

12월 들어서는 LG 트윈스의 내부 FA 3명이 차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18일 송은범(2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일 오지환(4년 40억원), 26일 진해수(2+1년 14억원)가 계속해서 줄무늬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했다.

아직 시장에는 13명이 남아 있다. 그중에는 KIA 타이거즈의 키스톤 콤비 안치홍과 김선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형 외야수 전준우 등 탐나는 자원들도 꽤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계약 소식은 없다.

프로야구의 위기라는 분위기 속에 각 구단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 경쟁이 붙지 않으니 몸값은 오르지 않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택권 소중함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계약한 6명도 모두 원 소속구단 잔류를 선택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2020년이 된다. 1월이면 선수들이 조금씩 급해진다. 10개 구단의 스프링캠프가 2월1일 일제히 시작되기 때문이다. 캠프 시작 전에는 계약을 마쳐야 차질없이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도 쉽게 뜻을 굽히지 않는다. 지난해 역시 14명 중 10명이 해를 넘겨 계약했으며, 이들 모두 1월20일 이후 도장을 찍었다. 이용규와 최진행은 한화 이글스와 캠프 출국 일 전날 가까스로 계약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1월 중순까지는 선수와 구단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갑자기 방침을 변경해 외부 FA 영입에 나서는 구단이 없는 한, 선수들의 몸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 결국 구단의 제사액을 선수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메이저 6승 · 총 18승’ 박인비, 美 매체 선정 10년간 LPGA 최고의 선수



박인비(31 · KB금융그룹)가 지난 10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 선정됐다. 미국 골프채널은 29일(한국시

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골프의 각종 기록을 발표했다.

박인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번의 메이저대회를 비롯해 총 18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LPGA투어뿐만 아니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를 포함해도 가장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 숫자다. 같은 기간 PGA투어 최다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나란히 4승을 기록한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와 브룩스 캠퍼(미국)다.

18승 역시 같은 기간 최다 우승이고 박인비는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도 총 106주로 가장 오래 1위 자리를 지킨 선수가 됐다.

골프채널은 지난 10년간 골프계를 지배한 선수들 중 박인비를 첫 번째로 거론하며 “PGA투어와 LPGA투어를 통틀어 지난 10년간 박인비보다 더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없다. 박인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서 금메달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LPGA투어 최연소 우승자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다. 리디아 고는 지난 2012년 만 15세4개월의 나이로 캐나다 여자 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리디아 고는 2015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만 18세4개월20일의 나이로 정상에 서면서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도 보유하게 됐다.

PGA투어에서는 지난 10년간 매컬로이와 더스틴 존슨(미국)이 각각 18승을 올리면서 공동 최다 우승자가 됐다.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당시 나이 만 43세3개월15일로 최고령 메이저대회 우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